

디스플레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성별 남성

나이 27세

직종 디스플레이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는 2011년 05월 16일에 입사하여, 2017년 4월에 업무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17년 4월 26일에 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일차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6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여러 유기용제와 전리방사선, 유해화학부산물, 교대근무 등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5월 27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2011년 5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5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하였으며, 3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LCD액정공정이 위치한 곳에서 각 설비들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엔지니어로 업무는 크게 유기용제(세정제)등의 준비와 각 설비들의 클리닝, 유리판이 부서질 경우 처리 및 원인파악, 이온나이저 부품의 교체 등이 있었다. 근로자는 근무 시 방진복, 방진모, 안전모, 마스크, 라텍스장갑을 착용하였다. 필요 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바쁜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50%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는 1990년생으로 2011년 05월 16일에 입사하여 2017년 4월에 업무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17년 4월 26일에 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상 8cm의 중심부에 괴사가 있는 전 종격동 종괴(8cm size anterior mediastinal mass with central necrosis without calcification)가 관찰되었다. 또한, 4월 28일에 실시한 경피적 침 생검(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biopsy, PTNB)에서 CD20 양성인 PMBL을 진단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완전관해 상태로 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2주에 1번, 1번 음주 시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모의 딸인 친척 누나가 혈액암을 진단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외에 특이 질병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만 27세가 되던 2017년 4월에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1년 05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6년간 LCD액정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이고,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X-선과 감마선, TCE, 2,3,7,8-Tetrachlorodibenzo-para dioxin이 제한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상 □사업장에 6년간 근무하면서 벤젠과 X-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